

인내와 희망을 각인하는 베트남의 기념관 '전쟁범죄박물관', '호치민영묘'

고영직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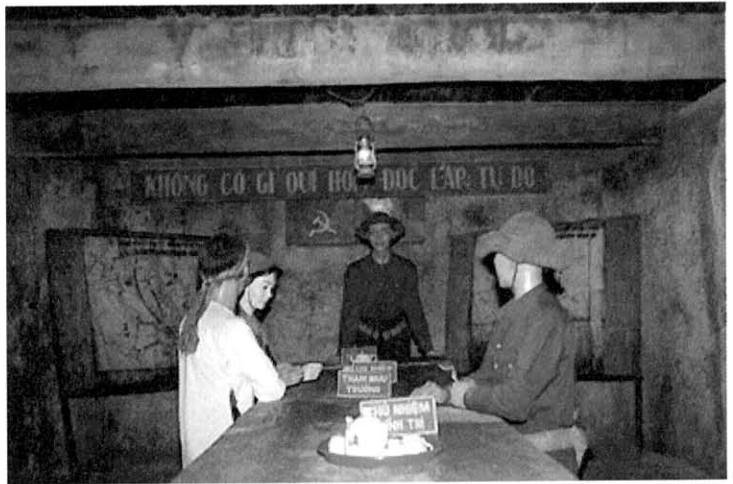


“**적**들이 감옥 문을 잠시 연 날 / 두 살
배기 다섯 살배기 수인들이 햇빛
속으로 엉금엉금 나왔다 / 담장 밖 풀을
뜯는 물소 한 마리 / 아이들이 서로 다툼
다 / 저건 코끼리아 / 담장에 기대앉은 여
자 수인들, 저마다 웃음이 터지는데 / 불
에는 눈물이 가득 흐르네.”

베트남의 시인 겸 소설가인 반레(55)가 1973년 무렵 록년에서 쓴 시 『꼬마 수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다』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작품이 씌어진 시기와 주제이다. 1973년이라면 ‘전쟁의 베트남화’를 위해 베트남 땅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과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진행하던 무렵이다. 이 작품은 바로 이 무렵 어느 정치범 감옥에 수감된 여죄수 어머니들과 ‘꼬마 수인(囚人)들’의 웃음과 눈물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VC (베트콩의 약칭)’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여성도 적지 않았다. 임신한 채 수감된 ‘여자 수인들’은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했다. 당시 월남군은 베트콩 포로들을 매우 잔인하게 고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옥 밖 ‘물소 한 마리’라도 볼 수 있는 ‘제한된 자유’는 사실상 승리를 눈앞에 둔 전황(戰況) 변화와 평화협정의 진행 덕분이었던 셈이다.

베트남은 독립과 자유를 위해 물경 ‘천년 전쟁’을 지속해 온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 몽골,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오로지 강한 힘을 믿고 자기 땅을 침략했던 외세에 맞서서 베트남 사람들은 저항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감옥은 언제나 넘쳤다. 베트남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는 베트남 남부 봉타우에 있는 포울로 콘도레 섬의 감옥이다. 프랑스 치하였던 1930년에서 1934년에 걸쳐 수백 명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구찌 땅굴은 베트남 사람들의 인내와 희망을 체험할 수 있는 기념비적 유적이다.

수감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고문에 굴하지 않는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감옥을 ‘혁명 대학’으로 변모시킴으로써 훗날 베트남전쟁 승리의 정신적 원천이 된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종전 이후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시 동코이(‘붕기’라는 뜻) 거리에 있는 통일궁 북서쪽에 <전쟁범죄박물관>을 건립하면서 포울로 콘도레 섬의 감옥 역시 그대로 재현해 복원한다.

베트남, ‘인내와 희망’으로 이룩된 나라

‘용과 신선의 자손들’의 나라, 베트남은 ‘인내와 희망’으로 이룩된 땅이다. 인내와 희망이 아니고서는 지난 천년을 지배했던 외세 침략자들에 맞선 반란과 저항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줄기찬 저항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공동체와 혁명’을 향한 베트남 사람들의 오래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천년간 베트남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했던 가치는 ‘인내와 희망’이었으며, 이것은 1975년 4월 30일 종전 이후에 ‘자부심과 관용정신’이라는 아름다운 정신유산으로 결정체(結晶體)를 이루게 된다. 그러한 결과 오늘에 와서 베트남 민족이 자부심과 관용정신을 표상하는



호치민 <전쟁범죄박물관>에 복원된 포올로 콘도레 섬의 감옥. 일명 '타이거 비밀 감옥'으로 불린 이 감옥은 베트남의 '혁명 대학'이었다.(왼쪽) 이 비밀 감옥에는 단두대 등 잔혹한 고문 기구들도 전시되어 있다.(오른쪽)

대표적인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총 연장 250km에 달하는 구찌 땅굴은 지하에 까지 구축한 인내와 희망의 기념비적 조형물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우리와 같이 식민지 체험과 전쟁을 치른 베트남 땅에는 수많은 기념관과 위령비가 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가 '기념의 공간'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이 채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는 베트남의 대지(大地)가 품고 있는 '무언의 위령비'들이 서 있다. 가령 504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른바 '밀라이학살 사건' 현장의 야자수에는 아직도 총탄 자국들이 남아서 그때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한국군이 참전해 격전을 치렀던 팡남성, 팡나이성, 빙딩성, 푸옌성, 카잉호와성 같은 베트남 중부지방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베트남에서 '기억의 정치학'은 현재 진행형이다. 강

의 도시인 남부 호치민이 '전쟁' 당시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다면, 호수의 도시인 북부 하노이는 '호치민'과 관련된 혁명 흔적을 집대성한 유적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호치민의 <전쟁범죄박물관>과 하노이의 <호치민 영묘(靈廟)>는 남부와 북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격전지였던 중부 산간지방에는 성(省) 정부와 피해 마을에서 세운 크고 작은 위령탑들이 수없이 많다.

호치민의 <전쟁범죄박물관>은 '과거 극복(Vergangenheitsbewaeltigung)'을 위한 기억의 공간이다. 부산교대 전진성 교수(사회학)에 따르면, 과거 극복 개념의 특징은 과거가 단순히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단한 '대면'을 통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¹⁾

1) 전진성, 「아름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비평』 12호, 생각의나무, 2004, 457쪽.

〈전쟁범죄박물관〉은 이러한 과거 극복을 역사화한 공간으로서 베트남 사회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건립 정신은 “이 사진은 미군을 욕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전시한 것이다”라는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시물을 보노라면 폭력의 피해자를 생생한 인간에서 사물(事物)로 변형시키는 전쟁의 속성에 대해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68년 3월 16일 중부 밀라이(My Lai)의 504명의 양민 살육 사건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실제로 이 박물관에는 충격적인 장면을 담은 사진자료와 고문기구 그리고 각종 노획무기들이 적지 않다. 박물관 입구에 있는 수상인형극 공연장을 지나면 트락 곳곳에는 미군 헬리콥터와 탱크들이 전시되어 있다. ‘느린 총알(slow bullet)’로 불리는 고엽제로 사산한 아이들 유해가 담긴 포르말린병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흔(傷痕, Trauma)을 그 자체로서 웅변한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M16 소총과 폭탄 등 노획한 미군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콘도레 섬의 ‘타이거 비밀 감옥’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한 고문 장면과 단두대 등 고문 기구가 눈길을 끈다. 입장료는 우리돈 1천 원 남짓한 1만 동이다.

〈전쟁범죄박물관〉이 위치한 동코이 거리는 언제나 인파로 붐빈다. ‘호치민 답사 1번지’ 격인 동코이 거리에는 〈전쟁범죄박물관〉뿐만 아니라, 1868년 프랑스 총독 공관으로 건축되어 훗날 고딘 디엠 대통령이 사용한 통일궁 등 역사 유적지가 많다. 통일궁 앞 잔디광장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단골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는다. 입장료 1만 5천 동(1,200원). 통일궁 지하층은 전쟁 당시 월남전 총사령부였던 종합 상황실이다. 지하층의 천장과 벽은 두께 1.6m가 되는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사령관실, 직통 통신실, 비상시 대통령 침실 등이 나란히 붙어 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된 옛 대통령궁 사진실에는 1975년 4월 30일 오전 이곳에 진주한 탱크의 모습을

비롯해 월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민 장군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들이 보인다.

‘내면의 상처’ 극복 위한 〈평화공원〉 건립

베트남의 각종 박물관에서 한국에 대한 기록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필자가 1997년 6월 첫 방문했을 때, 한국군 관련 자료는 몇 장의 ‘순화된’ 사진이 전부였다. 개관 당시에는 한국군이 지프차에 베트남의 머리를 잘라 매달고 질주하는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베트남전기념관〉에 한국군의 존재가 없듯이, 베트남에서도 한국군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셈일까.

그러나 속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팡남성, 팡나이성, 빙딩성, 푸옌성, 카잉호와성 등 한국군이 작전을 펼쳤던 지역에는 한국군에 의한 참상을 기록한 ‘비문(碑文)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차마 문자로 옮기기 곤란한 표현들이 비문에 새겨져 있는 경우도 적잖다. 특징적인 현상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각각 ‘증오비’와 ‘위령비’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2001년 9월 5일과 6일에 걸쳐 베트남 중부지역 5개성에 모두 40개의 초등학교 및 병원을 무

〈전쟁범죄박물관〉에 전시된 한국군 모습





1948년, 고원의 밀림지대 안에 있는 호치민 (호치민박물관 소장)

상으로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치렀다.

소설가 방현석(43)은 『하노이에 별이 뜨다』라는 기행기에서 “상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는 이곳 땅 나이의 학교 기공식에는 태극기가 내걸릴 수 없었다”²⁾고 적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못지 않게 민간 차원에서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문명금·김옥주 두 분 할머니가 <한겨레21>에 기증한 성금이 촉발되어 추진된 <평화공원> 건립 사업은 1억 5천만 원이 모금되어 2002년 4월 기공식을 가진 뒤 올해 2월 베트남 현지에서 완공식을 가졌다. 베트남전진실위원회 집행위원인 성공희대 한홍구 교수는 이와 관련해 “우리들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³⁾

하노이 바딘광장, ‘공동체와 혁명’ 보존

베트남의 거리와 기념관은 대부분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이름에서 따온 경우가 많다. ‘호 아버지’라는 뜻의 ‘박호(Bac Ho)’로 불리는 호치민은 베트남 어느 지역에서든 관련 기념물을 접할 수 있다. 호치민 관련 유물은 까오방에 위치한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하노이(河內)의 바딘 광장에 자리한 <호치민박물관>에 흔적이 집대성되어 있다. 바딘 광장은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이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선언을 낭독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하노이 시내의 모습은 “박정희 없는 60년대 혹은 / 반공교육 없는 70년대 같아”⁴⁾라는 시적 표현과 딱 맞아떨어진다.

하노이에는 고난과 승리의 베트남 역사를 거리 곳곳

2) 방현석, 『하노이에 별이 뜨다』, 해냄, 2002, 168-169쪽.

3) 한홍구, 『미안해요 베트남』, 『황해문화』 2002년 가을호 ‘권두비평’

4) 김정환, 『첫 눈과 발—하노이—서울시편2』, 『하노이·서울시편』, 문학동네, 2003.

에서 만날 수 있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 이후의 베트남 역사는 <역사박물관>과 <혁명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노이 옛 시가지 서쪽에 있는 <호치민박물관>과 <호치민영묘>는 공동체와 혁명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호치민의 유적들이 잘 갈무리되어 있다. 1969년에 숨진 호치민은 1965년 5월 15일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화장'을 원했다. 그리고 묘역에 '질푸른 나무 숲'을 꾸밀 것을 당부하면서, "방문객마다 추모의 뜻으로 나무를 심을 것"을 바랐다. 1942년경 어느 저녁에 쓴 옥중시에서 "감옥에 장미향이 떠도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고 했던 호치민의 소박한 마음이 잘 묻어나는 대목이다.

1975년 8월 29일에 조성된 <호치민영묘> 외벽으로 나붙은 "호치민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 있다"라는 붉은색 추모 문구가 인상적이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는 영묘에 입장할 수 없다. 선글라스와 모자도 벗어야 하며, 사진 촬영도 할 수 없다. 중부 다낭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조성된 묘역은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꽃' 모양으로 꾸며져 있고, 유체는 유리 상자 속에 안치되어 있다. 외국인을 비롯해 베트남 사람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는 탓에 관람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한다.

<호치민영묘> 옆에는 1990년 5월 19일, 즉 호치민 탄

생 100주년 기념일에 개관한 <호치민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은 레닌박물관 전문가가 설계와 내부 장식을 맡는 등 옛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호치민 생가 모형, 생전 애용품, 각종 편지, 일상 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1958년에 목조건물로 만들어진 <호치민 생가>도 그 부근에 있다. 1층은 작은 회의실, 2층은 침실과 서재가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과거사 문제를 화두로 꺼낼 때마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Put aside the past cooperate for the future)"라고 말한다. 입이라

도 맞춘 듯하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물러간 적에게는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베트남 전래 속담이 적잖은 작용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쟁과 혁명에 관한 각종 기념물을 조성하는 등 일종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과거와의 대면 작업을



호치민 탄생 100주년을 맞아 1990년 5월에 조성된 하노이 <호치민박물관>의 각종 유품들에서 '소박한' 혁명가 호치민의 체취를 접할 수 있다.

베트남 사회가 지속적으로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터이다. 호치민 장례식에 프랑스 정부의 공식 조문단장으로 참석해 화관을 바친 장 생트니는 그때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적은 바 있는데, 역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베트남 사회에 대한 헌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과거를 잊고 단호히 미래로 향하자는 그의 결심에 보내는 (프랑스 정부의) 존경의 표시였다."⁵⁾

5) 다니엘 에브리, 『호치민: 혁명과 애국의 길에서』, 시공사, 1998, 181쪽.